나주시, '2026년 보훈가족 위로연' 성황리 개최

보훈가족 400여 명 참석…무공훈장 전수



나주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2026년 보훈가족 위로연'을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5일 나주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훈 가족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2026년 보훈가족 위로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회원과 유가족, 기관·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는 포에버앙상블의 에어로폰 공연을 시작으로 나주시중부노인복지관 실버합창단과 나주시립국악단의 다채로운 식전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어 제31보병사단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7개 보훈단체의 단체기와 각 단체장이 함께 입장하는 특별한 순서가 진행돼 국가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고(故) 박영태 육군 상병의 무공훈장을 유족에게 전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 박영태 상병은 육군 제2보병사단 제17연대 소속으로 6·25전쟁 당시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그 공훈을 인정받아 무성화랑무공훈장 서훈자로 결정됐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성인문해 시화전 수상자 시상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담양인문학 문해교실 시화전'과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에서 수상한 문해교육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6일 전했다.

성인문해 시화전은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성인 학습자들이 한글을 배우며 느낀 기쁨과 삶의 이야기를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행사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매년 새로운 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담양인문학 문해교실 시화전에는 학습자 92명이 참여했으며, 김칠순(92·개동교회) 씨가 담양군수상, 김화곤(81·덕촌마을) 씨가 담양군의회 의장상, 김서운(83·성도2구마을) 씨가 담양군노인협회장상, 배정효(85·무정관1반) 씨가 한국문해교육협회장상을 받았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이벤트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미리미리 연말정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알리고, 추가 혜택을 제공해 연말 기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중 화순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참여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2만 원 쿠폰을 증정한다. 이 가운데 300명을 추첨해 화순팜 1만 원권 모바일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또는 오프라인 NH농협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이벤트 기간 내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11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 실시

동물등록 의무 점검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영광군청 전경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되며, 공원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등록대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와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단주리동물병원, 박동물병원, 청수동물병원, 함께하는동물병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 변경은 영광군청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영광군은 집중단속과 함께 동물등록제도 및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자발적인 법령 준수와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진 기자

외국인 유학생들, 장성군 필암서원서 '조선 유생' 체험

GIST 유학생 30여 명, 세계유산 체험 프로그램 참여

장성군이 최근 운영한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 일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조선 유생 로그인'이 진행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0여 명에게 조선시대 학문과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유학생들은 유생복을 입고 필암서원을 둘러본 뒤 학문을 연구하는 강학 체험에 이어 유물전시관을 관람했다.

'선비의 다짐 족자 쓰기', '묵죽도 부채 그리기',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유학생들은 직접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선비정신에 담긴 가치와 한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집성관 공연장에서는 국악과 케이팝(K-pop)을 접목한 공연이 펼쳐져 유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세계유산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체험, 공연,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다. 국내외 방문객들이 선비정신을 일상에서 쉽고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활용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 사진 /장성군 제공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가치와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선비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재섭 기자

